

강원지역 e-비즈니스 현황과 발전과제[※]

민 남 식

강릉대 경영학과 부교수

E-mail : nsmin@kangnung.ac.kr

본 논문은 강원도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을 업종별, 매출액별, 종업원 인원별로 전국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전국 조사의 연구 프레임웍에 따라서 e-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e-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기업의 수준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강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 추진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e-비즈니스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지원과 산학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지역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 열악한 입지 구조상 소규모의 소호창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강원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1.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IT) 기반의 산업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의 발달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지

※ 이 논문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2003년 전국의 e-비즈니스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필자가 조사책임자로서 직접 조사한 강원도지역의 실태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강원지역을 위한 본 논문의 작성을 허락해 주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감사를 드린다.

식정보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이용으로 소비자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의 비용절감에 의한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인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기업은 판매·홍보전략의 효율화로 이익창출이 용이하며, 비용절감, 고객만족도의 제고, 새로운 판매시장 개척, 소비자와 직접 유통채널에 의한 구매비용 및 재고비용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별 기업 e-비즈니스 현황 및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지역별 기업 e-비즈니스 현황 도출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에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현황조사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되었다. 현황조사는 춘천, 원주, 강릉에 소재한 100개 기업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고, 부득이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및 e-mail을 통하여 설문지를 접수하고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내용을 확인하였다. 표본추출은 한국전자거래 진흥원에서 주관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업종 분포도에 따라서 설문조사대상 기업을 추출하였고 표본추출 결과는 전국 조사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업종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는 (1)섬유/의류제조업, (2)석유/화학제조업, (3)1차금속/비철금속제조업, (4)기계/장비제조업, (5)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6)자동차/운송장비제조업, (7)식품료품제조업, (8)도소매/유통, (9)숙박/관광, (10)기타업종으로 크게 10개 업종별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매출액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는 (1) 10억 미만, (2) 10~50억 미만, (3) 50억~100억 미만, (4) 100억~300억 미만, (5) 300억 이상으로 크게 5개의 기업군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였다.

종업원 인원수에 따른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는 종업원의 인원수는 4개의 기업군으로 분류하여평가 하였다. 즉, (1) 30~5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 (2) 50~1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 (3) 100~2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 (4)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의 4개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강원도의 e-비즈니스의 수준과 e-비즈니스 정책과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e-비즈니스 수준평가를 위해서는 업종별, 매출액별, 종업원 인원수에 따라서 기업의 기준지수를 평가하였으며, e-비즈니스 정책과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그리고 효과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e-비즈니스의 환경은 주요 거래 파트너들의 e-비즈니

강원지역 e-비즈니스 현황과 발전과제

스 마인드 및 필요성, 인프라 구축 수준, 정부정책 및 지원의 영향, 법 제도 등의 5개 항목을, 인프라는 기업의 IT예산, 증가율, 솔루션 도입, 인터넷 접속형태, 인력 및 e-비즈니스 인프라 관련 보유 및 활용의 정도 등 5개 항목을, 프로세스는 기업의 제반 업무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e-비즈니스 도입이나 인터넷 및 기본 인프라 활용 현황에 대한 11개 항목을, 수행인력은 e-비즈니스 전략을 수립 및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전담조직 및 교육에 대한 4개항목을, 효과로는 e-비즈니스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경우 획득가능한 재무적 가치 및 기타 애로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9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II. 강원도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평가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현황조사의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분류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① 업종별 기업 기준지수(평균)의 평가, ② 매출액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 ③ 종업원 인원수에 따른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

강원도 지역의 기준지수와 선도 지역(평균지수 이상 지역) 및 지역별 평균 기준지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에 따른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1. 업종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

〈표 1〉은 강원도 지역의 업종별 기업 e-비즈니스에 대한 각 분야의 평균점수를 기준지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강원도 업종별 기업 e-비즈니스 평균

업종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	지수평균
섬유/의류	3.20	1.75	1.59	1.31	2.13	2.00
석유/화학	3.20	1.85	2.53	2.30	2.65	2.51
1차금속/ 비철금속	3.14	1.98	1.56	1.73	2.30	2.14
기계/장비	3.16	1.83	2.21	2.13	2.13	2.29
전자부품/영상/ 음향/통신장비	3.14	1.88	1.91	1.68	2.10	2.14
자동차/ 운송장비	3.00	1.56	1.82	1.44	2.00	1.96
음식료	2.92	1.68	1.62	1.54	2.43	2.03
도소매/유통	2.70	1.50	1.86	1.13	2.00	1.84
숙박/관광	3.28	2.08	2.30	2.08	2.80	2.51
기타	3.10	1.91	2.21	2.09	2.46	2.36
평균	3.06	1.81	1.92	1.76	2.36	2.18

각 분야는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능력, 효과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각 항목은 해당분야에서 최소 4~9개의 하위항목을 갖고 있으며 <표 1>에 나타난 점수는 이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표준화시킨 지수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강원도 지역의 업종별 e-비즈니스 평균지수를 전국 평균과 선도 지역을 비교하여 보았다.

(1) 환경분야

먼저, “환경”은 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기업, 정부정책 등의 외부적 환경에 대한 것이다. 환경 분야의 평균지수(3.06)는 전국 평균지수(3.1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선도지역(경남: 3.39)과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식음료제조업, 도소매/유통 업종을 제외하고 대체로 전국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숙박/관광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두드러진 점수를 보여주어 정부정책 및 산업 환경이 특히 강원도 지역의 숙박/관광 업종에서는 그 필요성과 함께 업계에서도 e-비즈니스의 수행이 경영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프라 분야

“인프라”는 기업이 e-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컴퓨팅, 네트워크, 보안등의 시스템 구축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것이다. 인프라 분야도 평균지수(1.81)는 전국 평균지수(2.07)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선도지역(서울: 2.44)과는 다소 차이를 많이 나타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인프라 분야에서는 평균지수 2.00 안팎의 점수를 나타냈지만 강원도 지역의 점수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또한 업종별 구분에서는 도소매/유통(1.50) 업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반대로 숙박/관광(2.08) 업종은 전국 평균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프라 분야가 전반적으로 영세한 것은 정보기술의 특성상 강원도의 지역적 편차라고 보기는 힘들다.

(3) 프로세스 분야

“프로세스”는 기업의 제반 업무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e-비즈니스 도입이나 활용현황에 대한 것이다. 프로세스 분야는 평균지수(1.92)가 역시 전국 평균지수(2.26)보다 낮았고 선도지역(울산: 2.49)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기계/장비제조업(2.21), 숙박/관광(2.30) 업종을 제외하고는 평균지수 2.00 조차 넘지 않았다. 섬유/의류제조업(1.59), 1차금속/비철금속제조업(1.56) 업종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 분야에서도 강원도 지역은 역시 숙박/관광(2.30) 업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수행능력 분야

“수행능력”은 e-비즈니스 전략을 수립 및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전달조직 및 교육에 대한 것이다. 수행능력 분야는 평균지수(1.76)가 전국 평균지수(2.01) 보다 더 낮았으며 선도지역(경남: 2.31)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도소매/유통(1.13)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평균치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강원도 지역에서의 석유/화학제조업(2.30) 업종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며 선도지역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5) 효과 분야

“효과”는 기업이 e-비즈니스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경우 획득 가능한 재무적 가치 및 기타 애로사항/추진계획에 관한 것이다. 효과 분야는 평균지수(2.36)가 전국 평균지수(2.41)에 대체로 가깝게 나타났다. 선도지역(서울: 2.61)과는 차이를 보였지만 강원도 지역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지역도 있으므로 평균치라 보아도 무방하겠다. 가장 낮은 점수는 자동차/운송장비제조업(2.00) 업종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는 숙박/관광(2.80) 업종이었다.

2. 매출액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

매출액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는 다음 <표 2>에서 정리하였다. 각 5개 항목의 평균점수는 <표 1>과 같으므로 매출액별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는 최하점수와 최고점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표 2> 강원도 매출액별 기업 e-비즈니스 평균

매출액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능력	효과	지수평균
10억미만	2.77	1.54	1.50	1.29	1.98	1.82
10억-50억	3.05	1.78	1.80	1.65	2.28	2.11
50억-100억	3.20	1.95	2.11	2.03	2.51	2.36
100억-300억	3.27	1.92	2.26	2.06	2.53	2.41
300억이상	3.11	2.00	2.60	2.32	2.86	2.58
평균	3.06	1.81	1.92	1.76	2.35	2.18

(1) 환경 분야

먼저, 환경 분야에서의 각 매출액별 기업군의 점수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점수도 높게 나

타나고 있으나 300억 이상의 매출액을 나타내는 기업군에서는 오히려 10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것은 조사 참여업체 중 강원도 지역에서 3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갖는 기업의 표본이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가장 낮은 점수는 1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2.77)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100~30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3.11)이었다.

(2) 인프라 분야

인프라 분야에서는 역시 매출액별 기업군의 점수가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서 높게 나타났으나 3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갖는 기업에서도 전국평균(2.07)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1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1.54)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300억 이상의 매출액 기업군(2.00)이었다.

(3) 프로세스 분야

프로세스 분야에서도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와 같이 매출액이 높은 기업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인 300억 이상의 매출액 기업군(2.60)은 전국평균(2.26)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100~30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2.26)은 전국평균과 같았다. 프로세스 분야는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항목에서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세하게 나타났다.

(4) 수행능력 분야

수행능력 분야에서도 다른 항목과 같이 매출액이 높은 기업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300억 이상의 매출액 기업군(2.32)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5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1.29)으로 전국평균(2.01)은 50~10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2.03)에서 이미 넘어섬으로써 강원도지역의 수행능력 분야 항목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5) 효과 분야

효과 분야에서도 매출액이 높은 기업군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10~5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2.28)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평균(2.41)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서 강원도 지역의 소규모 이상 대부분의 기업은 효과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저 점수는 50억 미만의 매출액 기업군(1.98)이었으며 최고 점수는 300억 이상의 매출액 기업군(2.86)으로 나타났다.

3. 종업원 인원수에 따른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

각 5개 항목의 평균점수는 <표 3> 과 같으므로 종업원 인원수에 따른 기업 기준지수의 평가는 최하점수와 최고점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표 3> 강원도 종업원 수별 기업 e-비즈니스 평균지수

종업원수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	지수평균
30~50	3.08	1.86	1.86	1.69	2.32	2.16
50~100	2.88	1.66	1.88	1.70	2.28	2.08
100~200	3.55	1.63	2.16	2.31	2.19	2.37
300~이상	3.32	2.00	2.76	2.50	3.25	2.77
평균	3.06	1.81	1.92	1.76	2.35	2.18

(1) 환경 분야

강원도의 종업원 수별 기업 e-비즈니스 평균지수의 평가에서 우선 환경 분야는 100~2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3.55)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기업군은 50~1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2.88)이었다. 매출액에 따른 기업 e-비즈니스 평균지수와는 달리 종업원 수에 따른 기업 e-비즈니스 평균지수는 종업원 수와 상관관계는 없었다. 하지만 종업원 수와는 관계없이 대체로 전국평균(3.11) 전후의 점수를 나타내서 환경 분야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개 항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업원 수별 기업군인 300명 이상의 기업군(3.32)은 100~2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30~5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3.08)은 최하 점수를 나타낸 기업군인 50~1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 보다 높았다. 따라서 e-비즈니스를 위한 환경 분야의 항목은 종업원 수와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프라 분야

인프라 분야에서는 100~2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1.63)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의 4개 기업군(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프라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은 전국평균(2.07)에 미치지 못하여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직 인프라가 미비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은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을 제외하고는 2.00의 점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e-비즈니스의 진행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프로세스 분야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가장 높은 점수는 300명 이상의 종업원수 기업군(2.76)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30~5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1.86)이었다. 프로세스 분야에서도 전국평균(2.26)과는 100명 이상의 종업원 수를 보유한 기업에서만 초과를 했으며 종업원 수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행능력 분야

수행능력 분야에서도 역시 종업원의 수에 따라 조금씩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점수는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2.50)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30~5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1.69)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의 수에 의해 차이를 보였으나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군들(2.31 이상)에서는 전국평균(2.01)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프로세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군들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행능력 분야를 우세한 항목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효과 분야

효과 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점수가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았다.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3.25)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100~200명 미만의 종업원 수 기업군(2.19)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00명 이상의 종업원 수 기업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평균(2.41) 이하의 점수로 나타나 효과 분야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세로 판단된다.

4.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 수준 평가의 종합

지역별 기업 종합지수의 평가는 (1)전국평균, (2)강원도, (3)전국최고, (4)전국최저로 구분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지금까지의 e-비즈니스에 관한 강원도 지역의 종합평가 현황은 <표 4>에서 정리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는 <표 4>와 같음으로 지역별 기업 종합지수의 평가와 항목별 최하점수와 최고점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표 4〉 전국 기업 e-비즈니스 수준평가의 종합

지역 \ 항목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	종합지수
강원	3.06	1.81	1.92	1.76	2.36	2.18
전국평균	3.11	2.06	2.26	2.01	2.41	2.37
전국최고	3.39 (경남)	2.43 (서울)	2.61 (경남)	2.31 (경남)	2.88 (경남)	-
전국최저	2.96 (제주)	1.81 (강원)	1.92 (강원)	1.76 (강원)	2.19 (전북)	-

(1) 환경 분야

지역별 기업 e-비즈니스 종합평균지수의 평가에서 우선 환경 분야에는 경남 기업군(3.39)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비록 강원도의 기업군(3.06)은 제주지역의 기업군(2.96)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3.11)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은 e-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이 아직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인프라 분야

인프라 분야에서는 지역별 기업군의 점수가 서울이 2.43으로서 전국 평균(2.06)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강원도(1.81)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프라부문에 있어서 열악함을 보여 주었다.

(3) 프로세스 분야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강원도 지역이 기업군은 1.92의 평균지수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평가 대상인 16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2.00이하의 점수를 받은 지역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경남(2.61)이나 전국평균(2.26) 보다 훨씬 낮아서 지역별 기업군의 비교 항목에서는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주 미흡하게 나타났다.

(4) 수행능력 분야

수행인력 분야에서도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의 항목과 같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역의

기업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의 지역은 경남(2.31)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의 지역은 강원(1.76)으로 전국평균(2.01)보다 역시 낮게 나타났다.

(5) 효과 분야

효과 분야에서는 비록 강원도의 기업군(2.36)은 전북지역의 기업군(2.19)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2.41)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은 e-비즈니스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아직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계 결과에 있어서 강원도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강원도는 지리적 위치와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 섬유, 제조업, 기간산업이 발달하기 힘든 상황에서 식음료 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해양 생물산업에 중점을 두어 발달해 왔으나 지역 기업의 영세성과 인터넷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III.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현황과 문제점

앞서 살펴본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을 평가해본 결과, 전국평균 수준에 가까운 분야와 우위에 있는 분야, 그리고 열세에 있는 분야가 구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e-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의 5개 분야를 수치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의 현황

(1) e-비즈니스 환경 분야

강원도 지역의 기업 e-비즈니스 환경 분야의 점수를 구성했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① e-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②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 ③ 협력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수준 자체평가, ④ 정부 및 지원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영향력 평가, ⑤ 유관기관의 활동이 해당 기업에 대한 영향력 평가

이들 항목을 토대로 전국 기업 e-비즈니스에 관한 환경 평균지수와 강원도 지역의 평균 지수의 현황을 <표 5>에서 정리하였다.

〈표 5〉 전국 기업 e-비즈니스 환경

지역 \ 항목	필요성	수준	협력기업의 기반	정부정책 및 지원	유관기관의 영향	평균지수
강원	3.75	2.54	2.61	3.23	3.19	3.06
전국평균	3.68	2.73	2.71	3.21	3.20	3.10
전국최고	3.98 (경남)	3.06 (경남)	3.03 (경남)	3.43 (경남)	3.43 (경남)	3.38
전국최저	3.41 (광주)	2.47 (대전)	2.45 (제주)	3.01 (제주)	3.04 (경북)	-

강원도 지역의 전체적인 e-비즈니스 환경 분야에 대한 점수는 전국평균에 비하여 낮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환경 분야의 점수는 뛰어나게 나타났고 평균점수에 근접하여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②번 항목의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와 ③번 항목의 협력기업에 대한 e-비즈니스 수준 자체평가가 환경 분야의 점수를 낮게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의 기업들은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들이 평가하는 e-비즈니스 수준은 기대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한 e-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정부정책 및 지원, 유관기관의 활동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서 수동적으로 정부의 e-비즈니스 지원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2) e-비즈니스 인프라 분야

강원도 지역의 기업 e-비즈니스 인프라 분야의 점수를 구성했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e-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예산 비율, ② e-비즈니스 관련 시스템의 보유, ③ 보안관리 솔루션의 도입 및 활용, ④ 백업시스템의 활용도, ⑤ e-비즈니스 시스템의 인터넷 활용도, ⑥ 인터넷 접속방식 이들 항목을 토대로 전국 기업 e-비즈니스에 관한 인프라 평균지수와 강원도 지역의 평균지수의 현황을 〈표 6〉에서 정리하였다. 강원도 지역은 5개 분야에서 두 번째로 점수가 낮았던 분야가 바로 인프라 분야이다. 그만큼 e-비즈니스 활동에 소극적인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으나 e-비즈니스를 위한 투자예산은 부족하고 보안관리는 허술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기업의 접속방식도 대부분 전용선이 아닌 ADSL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전화접속을 통하는 기업도 있었다.

〈표 6〉 전국 기업 e-비즈니스 인프라

지역 \ 항목	투자예산비율	보안 관리	백업 시스템	인터넷 기반구축	평균지수
강원	1.55	1.42	2.17	2.10	1.80
전국평균	1.64	1.83	2.50	2.31	2.07
전국최고	2.14 (서울)	2.15 (서울)	2.82 (서울)	2.69 (충북)	-
전국최저	1.39 (전북)	1.42 (강원)	2.17 (강원)	1.98 (전북)	-

(3)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야

강원도 지역의 기업 e-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야의 점수를 구성했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① e-비즈니스를 통한 제품 및 기업홍보, ② 주문처리의 정보시스템화, ③ 자재구매의 정보시스템화, ④ 원자재 재고관리의 온라인화, ⑤ 생산관리의 정보시스템화, ⑥ 온라인을 통한 결제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연동, ⑦ 배송조회의 온라인화, ⑧ 고객관리의 전사적 관리, ⑨ 인사관리의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활용, ⑩ 인트라넷(그룹웨어)의 활용 이들 항목을 토대로 전국 기업 e-비즈니스에 관한 프로세스 평균지수와 강원도 지역의 평균지수의 현황을 〈표 7〉에서 정리하였다.

〈표 7〉 전국 기업 e-비즈니스 프로세스

항목 지역	홍보	주문 처리	자재 구매	원자재 재고관리	생산 관리	결제	배송 조회	고객 관리	재무 관리	인사 관리	그룹 웨어	평균 지수
강원	2.16	2.12	1.75	1.99	1.82	2.14	1.56	1.90	2.67	1.66	1.36	1.92
전국 평균	2.39	2.39	2.26	2.43	2.29	2.20	1.71	2.23	3.20	2.13	1.84	2.28
전국 최고	2.67 (인천)	2.91 (경남)	2.90 (경남)	3.10 (경남)	2.87 (경남)	2.62 (서울)	2.24 (경남)	3.03 (경남)	3.49 (울산)	2.72 (서울)	2.25 (울산)	-
전국 최저	2.09 (경북)	1.98 (전남)	1.66 (제주)	1.97 (제주)	1.73 (제주)	1.71 (대구)	1.39 (전북)	1.64 (전북)	2.57 (부산)	1.66 (강원)	1.36 (강원)	-

강원도 지역은 프로세스의 모든 분야가 전국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인프라 분야에서 낮은 수준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③ 자재구매의 정보시스템화, ④ 원자재 재고관리의 온라인화, ⑤생산관리의 정보시스템화, ⑧ 고객관리의 전사적 관리, ⑨ 인사관리의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 활용, ⑩ 인트라넷(그룹웨어)의 활용의 분야는 전국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시급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e-비즈니스 수행인력 분야

강원도 지역의 기업 e-비즈니스 수행인력 분야의 점수를 구성했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평가, ② e-비즈니스 전담조직의 정도, ③ 업무수행능력의 정도, ④ 임직원 교육에 대한 평가

이들 항목을 토대로 전국 기업 e-비즈니스에 관한 수행인력의 평균지수와 강원도 지역의 평균지수의 현황을 <표 8> 에서 정리하였다.

<표 8> 전국 기업 e-비즈니스 수행인력

지역 \ 항목	정보기술 활용평가	전담 조직	업무 수행능력	임직원 교육	평균지수
강원	1.46	1.56	2.20	1.82	1.76
전국평균	1.61	1.75	2.50	2.18	2.01
전국최고	1.95 (서울)	2.03 (서울)	2.78 (서울)	2.76 (경남)	-
전국최저	1.35 (제주)	1.45 (제주)	2.16 (부산)	1.75 (대구)	-

다른 분야에서도 강원도 지역의 평가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지만 전국조사의 경우, 5개 항목 들 중 수행인력 분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강원도 지역은 각 항목에 대한 최하점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지수를 나타냈다. 강원도 지역의 ①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평가, ④ 임직원 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른 지역과의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보다도 경영자 자신의 정보기술에 대한 확신과 지원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며, 정부정책은 경영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기술 마인드 확산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 e-비즈니스 효과 분야

강원도 지역의 기업 e-비즈니스 효과 분야의 점수를 구성했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① e-비즈니스 활동의 기업매출 기여도, ② e-비즈니스 활동의 협력기업 만족도, ③ e-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비용절감, ④ e-비즈니스를 위한 향후 계획

〈표 9〉 전국 기업 e-비즈니스 효과

지역 \ 항목	매출 기여도	협력기업 만족도	비용절감	향후계획	평균지수
강원	1.97	2.90	2.07	2.48	2.36
전국평균	2.10	2.97	2.15	2.44	2.42
전국최고	2.41 (경남/서울)	3.30 (경남)	2.45 (경남)	3.34 (경남)	-
전국최저	1.92 (대전)	2.24 (전북)	1.90 (전북)	2.0 (대구)	-

강원도 지역의 효과 분야에 대한 점수는 전국평균에 비하여 낮지만 대체로 유의한 차이 없이 나타났다. 효과 분야를 포함한 앞서 살펴본 5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보기술 또는 e-비즈니스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공통적으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정책을 기대하거나 자발적인 e-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게 공통적인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e-비즈니스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

전자상거래는 재고, 유통비용 등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시장과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경제발전의 전반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거래내역을 컴퓨터로 기록,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역량이 부족하다. 성과에 대한 확신이 미흡하고 투자 여력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무자료 거래 등 불투명한 거래관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표준화 지불 시스템 등 e-비즈니스 운영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셋째, 지역 기업간 파트너십 부재로 인한 협력노력 미흡한데, 이는 기업간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동종업체간에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개방적인 공동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은 자각하고 있으나 자금과 인력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중소기업의 B2B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다섯째,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투명한 거래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자금 및 세원노출 경계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열악한 시스템 기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제공되는 통신망의 속도가 느려서 동영상 정보 등 충분한 상품정보의 제공이 곤란하다.

일곱째,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는 오프라인 조직 보호를 위하여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지체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보급과 확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여덟째, 일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안감, 기존 대금결제 관행과 거래 자료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기타 문제의 인식으로 자유 기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지자체의 e-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효과)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인식에 따른 회의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과제로 e-비즈니스를 수행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환경에 노출되는 지역 기업들의 생존전략과 직결된 문제로서의 인식전환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과 인프라가 빠르게 변화하여 수행 인력의 수급이 안정적임에도 기존 종업원들의 적응에 따른 역기능이 존재한다. 자사 또는 파트너 기업들의 제반 여건 및 문화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선전효과나 성급한 성과기대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으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 단 단계적인 e-비즈니스 추진계획에 따르는 기업들에게는 경영자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와 경영혁신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의 e-비즈니스를 위한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운영에 따른 중간 유통단계의 축소 및 도태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산업의 진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실로 인식하여야 하나 e-비즈니스의 새로운 채널은 기존 채널과의 마찰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갈등해소방안으로 고객, 가격, 브랜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차별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강원도 지역의 문제점 종합

(1)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상과 같은 강원도 지역의 업종별, 매출액별, 그리고 종업원 인원수에 따른 기업의 e-비즈니스 현황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강원도에 기반을 둔 기업체의 e-비즈니스의 수준은 조사대상 16지역에 있어서 최하위 종합지수(2.18)를 받았다. 강원도 지역의 조사대상 업체 90% 이상이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100억에 70%이상의 해당 기업체가 밀집하여 있다. 강원지역 경제는 광업, 식품 가공업,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월과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시멘트 및 광업, 강릉 및 속초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은 원주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매우 적은 편이다. 조사대상 기업체들의 업종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업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였으며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3차 서비스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보고서의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의 5개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의 전체적인 e-비즈니스 환경 분야와 효과 분야에 대한 점수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았지만 다른 3개 분야에 비해서는 평균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타 지역과의 평균점수에 근접하여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 3개 분야는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있어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받았다. 이는 강원도 지역의 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기에 IT 기반이 절실한 대기업의 e-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야에 있어서 점수가 높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대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강원도의 여건에서 e-비즈니스 분야를 수행할 인력을 개발하고 인력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e-비즈니스 인프라 분야에 있어서 강원도는 물리적, 기술적, 사회·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이 미비하였다. 즉, 강원도는 소극적인 e-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업체규모의 영세성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

현재의 강원도 IT산업은 규모, 경쟁력, 핵심 분야 산업체의 비중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취약하며 현재와 같은 환경과 여건 하에서 IT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강원도의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영세하다. 2002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조사한 '강원지역 IT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년도 춘천, 원주, 강릉권의 150여 업체의 통계에 의하면 종업원 2~5인이 53.9%, 1인 이하 27.5%, 6-10인 20.3%, 11-20인이 7.9%, 20인 이상 6.2%였다.

업체가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는 기술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외에 기업체들은 도내 업체 발주 우선권, 지방업체 우대사항 신설,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 대책, 신기술 정보를 적기에 알려주는 채널 제공, 관련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강원도의 산업의 중심이 되는 춘천, 원주, 강릉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 기업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어렵다.

(3) 기업유치와 인력유출 문제

강원도의 IT 산업 경쟁력 약화의 여러 원인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산업체를 지역에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우수 인력의 유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인력유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취업할 우수 기업이 지역에 많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적인 인력유출 대책은 바로 취업인 것이며 이는 또한 지역의 기업유치와 서로 상승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득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해결해야할 목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사업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많은 기업들이 춘천시를 기점으로 하여 많은 세제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강원지역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이들 기업체의 경우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개발 인력이 서울로 되돌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며 이를 대체할 인력 공급을 지역에서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강원도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을 강원도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여야 한다.

(4) IT 인프라의 취약

강원도의 IT 인프라는 물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제도적 측면에 있어 매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 지역은 정보화 기반시설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써 초고속 통신망이 아직까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강원도는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중소기업은 과도한 시스템구축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타 지역의 기업

들에 비해 더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참여가 절실하며 또한 기업 스스로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로 중소기업을 위한 e-마켓플레이스 구축은 과도한 초기투자비용이나 방법론적인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자체 기술개발에 의한 거래선의 발굴로 발전하기보다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의 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지 못한 각종 관행을 계속 찾아내 전자상거래에 알맞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를 들어, 무자료 거래와 투명하지 못한 납품 및 조달관행, 비합리적인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와 프로세스 등은 전자상거래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IV.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과제

강원도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정부, 또는 기업의 한 분야에서만 역할을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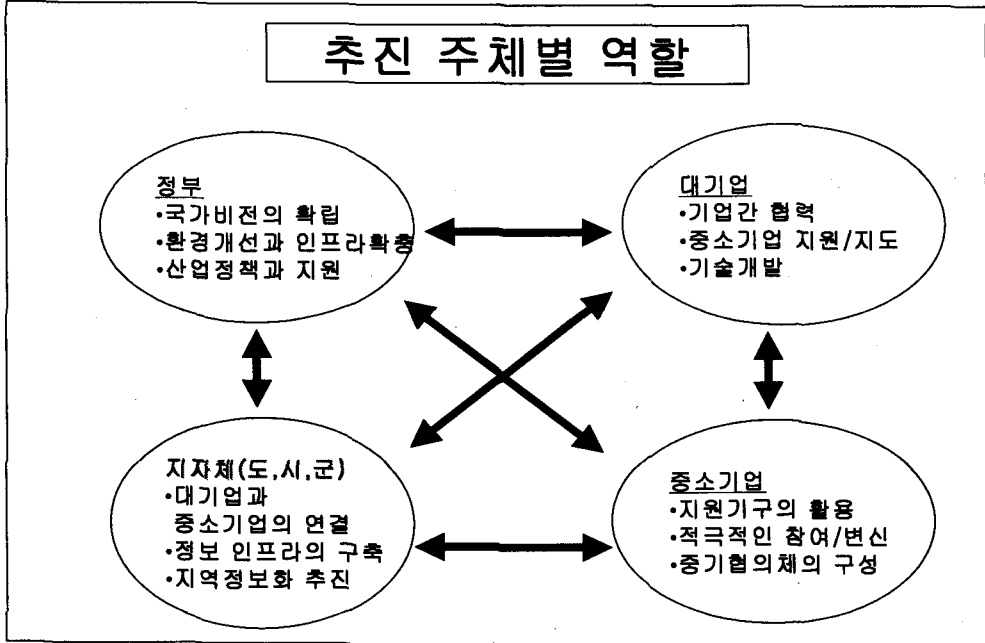
그 주체로는 크게 ①정부 ②지자체 ③대기업 ④중소기업의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각의 주체들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e-transformation 또는 e-adoption을 통하여 e-비즈니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경제, 핵심 산업, 개별 기업 및 공공부문의 경쟁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별 사업모델 상용화 및 협력강화, 정부 및 공기업 효율화 및 시장선도를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 2~3년 내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 주체별로 담당해야할 정책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추진 주체별 역할과 과제



(1)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 동안 정부는 e-비즈니스 추진정책을 위해 2000년부터 44개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국가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또한 2002년도에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여 e-비즈니스 기반구축을 경주하였다. e-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이나 기업들간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수행은 민간기업의 e-비즈니스 참여를 촉진하여 실효성이 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투영하는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e-비즈니스 확대, 정보격차해소, IT 전략품목의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IT 인력양성을 위해서 IT 관련학과를 신설지원, 현장지향의 교육강화, IT 전문가의 겸임 교수제, 교과과정의 개편, 해외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전자거래 관련 국내법제도의 정비, 소비자 보호, 이용자 신뢰구축 등 인터넷 개방 환경에 따른 제반문제 해결
 - ② 전자거래 표준의 설정과 표준화기구의 설치
- 정부주도로 모든 은행권이 참여하는 지급결제 표준화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사용 의무화. 기업의 완벽한 전자상거래 수행을 위해서는 상품 등의 전자카다로그 표준화, 다양한 전자문서의 인터넷내에서의 사용 호환성 제공, 보안/인증/전자지불시스템 등에서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안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민간에서 일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지체되고 있으며 이를 정부에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율을 나서야 한다.

③ 전자거래 사용 및 보급자로서의 정부의 선도적 역할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정부내에 모든 일반품목 구매의 조달처를 집중 및 온라인화하고 정부조달 참여기업의 e-비즈니스 입찰요건의 의무화한다. 또한 공기업 B2B 달성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제적 규범제정 및 표준화 회의의 참가와 적극적 주도

⑤ 정부주도 e-비즈니스 상설기구 설치

법령, 전자조달, B2B의 국가인증제도, 전자수표 등의 핵심과제를 수행할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다자간 전자상거래 협의체를 확대·개편하고 국가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해결을 위해 상설기구를 국가 주도로 글로벌 e-비즈니스 협의체를 구성한다.

(2)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강원도의 IT 분야 산업의 업종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및 장비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IT 업체의 규모는 영세하다. 따라서 강원도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강원지역 내 핵심 산업의 e-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지역(시·군)별 핵심 산업의 e-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지자체의 주도하에 협의기구를 발족하여 e-비즈니스 지역대표를 일원화하여 지역별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의 조속한 완성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 e-비즈니스 표준화 기구를 설치하여 지자체에 필요한 e-비즈니스 표준화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3) 대기업의 역할과 과제

대기업차원에서도 지역별·권역별 핵심산업의 e-비즈니스 경쟁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기업의 전자카다로그 및 정부조달 참여기업의 전면적인 온라인화를 실시한다.
- ② 기업간 협력에 있어서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
- ③ e-Transformation을 위한 자금과 기술의 협력 및 보급의 역할을 한다.

④ 대기업의 일정제시 및 실천

(4)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그동안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문제점은 중소기업 업종별 e-마켓플레이스 정착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의 업종별로 기업들간의 원자재 구매 및 판로를 인터넷상에서 연계 대행하는 e-마켓플레이스가 200여 개 구축되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 발생 규모가 작고 회원업체 수 및 서비스 가능 데이터베이스의 절대부족으로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기 업과 연결하고 파트너십을 갖는다.
- ② 중소기업 전자카다로그 및 정부조달 참여기업의 전면적인 온라인화
- ③ 지역 내 민간기업간 e-비즈니스 협력조직의 발족

2.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방안

(1) 강원도의 지역정보화사업 내용 요약

강원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읍·면 지역의 정보 이용센터 구축: 이 사업은 2002년까지 강원도에 위치한 69개 읍과 면에 각각PC10대와프린터 1대를 공동정보 이용센터에 구축하였다.
- ② 종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이 사업은 2005년까지 강원도 지역에 관한 종합지리 정보에 관한 대상을 16개 분야로 선정하여 Database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③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개인 및 조직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 등으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 ④ 동해안 사이버 생태공원시스템 확대구축: 동해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 및 아름다운 비경과 문화재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한다.
- ⑤ 통합민원안내시스템 구축: 도, 시,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 자동 안내 및 통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한다.
- ⑥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복지관리정보자원을 DB화하여 복지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
- ⑦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에 관련된 자료와 유·무형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⑧ 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행사안내, 상담 등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공간을 구

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도의 지역정보화 사업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충실히 실행하여 내실화를 이루는가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전자상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IT 기반의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을 수용할 기업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방안

IT 산업은 특히 선두그룹이 아니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강원도 지역의 IT 산업 발전에 있어 특히 불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재검토

그동안 정보화시범마을 선정,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유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취업알선 등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성과가 있었지만 IT 산업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의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수주업체의 편중현상, 덤핑수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회피 등 그 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e-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민 누구나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각 가정마다 PC를 갖도록 촉진되어야 하며, 디지털 취약지역 및 소외 계층에 대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정보화 시작부터 정보격차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 도민의 정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정보화 관련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2) e-비즈니스의 확충과 지원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될 수 있는데, 물리적 인프라와 기술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제도적 인프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리적 인프라란, 통신망과 물류 시스템, 전문 인력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통신망은 기존의 전화, TV, 케이블TV 보급망에서부터 무선 통신과 초고속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신 및 정보화 기반을 의미한다. 물류 시스템은 육상, 해상, 항공 운송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써 강원도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적인 요인

으로 인하여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기술적 인프라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며 거래가보다 안전성 있고 신뢰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인프라는 크게 기초 기술과 지원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기술은 통신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각종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의미하고, 지원기술은 각종 보안 및 지불 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공통 기반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사회·제도적 인프라는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기 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의 정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모델들이 출현하고 많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관행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3) IT 인력의 양성

강원도의 여건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설과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발, 국가공인자격증인 '전자상거래관리사'와 같은 자격취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한 중급이상의 기술자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재교육 및 위탁교육에 의한 전문 기술 습득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교육훈련을 담당할만한 외부전문기관의 부족, 별도의 교육시간 할애의 어려움, 교육 재원부족 등이 문제다.

① 전자상거래학과의 신설과 교과과정의 내실화

IT 기반의 산업기술이 급변하고 발전하고 있기에 새로운 교과서와 신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기본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며,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능력, 그리고 응용 능력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졸업생이 신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대학에서 교과과정 개정이나 교육 내용의 최신화를 위해 노력하여야만 한다.

②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발

강원도는 바다와 산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레저산업에 있어서 최적지이기에 산업구조상 관광산업으로의 활성화가 필수불가결 하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문화관광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중심의 학습방법의 제시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체계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기업의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정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강원 지역의 특성화에 맞는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각종의 전자상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을 하였다면 인턴쉽

의 기회를 제공한 기업에 대하여 우수 인력을 우선 배정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지역출신 기업체의 모임인 강원벤처포럼과 같은 단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지역 대학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4) 강원도에 특화된 관광전자상거래의 개발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는 관광과 특산품을 들 수 있다. 먼저 관광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IT 기반의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발표회, 강원도의 관광업체와 숙박업체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관광과 관련된 콘텐츠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며 콘텐츠를 보다 실감나게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상의 단조로움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디오, 오디오, 3차원 영상, 시연 등의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하는데 친숙감과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 인터넷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유통 수단으로 부각될 것이다.

강원도의 각 시·군 및 도 차원에서 IT산업부문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확대와 고객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위한 관광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상품 구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콜 센터 운영과 충분한 A/S 능력, 데이터베이스 안에 수집된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확하고 자주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이 원하는 관심분야의 정보를 개인 e-mail로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효과적인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독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같은 사회적 측면, 조세감면과 같은 경제적 측면, 법과 제도정비와 같은 정책적 측면, 표준제정과 인증기관의 설립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5) 강원도 특산물 전자시장 거래의 활성화

현재 강원도 특산물 전자시장으로 GWmart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강릉지역의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온라인 전자시장을 통하여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gnemall이 있다. 이러한 강원도 특산물 전자상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① 전국적인 홍보 미흡, ② 참여업체의 무관심, ③ 결제 및 배송 시스템의 미비, ④ 화면구성에서 참신함의

부족 ⑤ 가격할인 혜택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서 중소기업이나 지역 도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나 자체 홈페이지 및 DM 발송을 통한 홍보, 팸플렛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원도 특산물 전자시장을 알리도록 한다. 둘째, 전자 지불시스템을 갖추으로써 결제와 배송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며, 전자결제의 보안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불절차의 간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과 편리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카탈로그 상의 정보와 실제 상품과의 격차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곧 소비자의 상품 반품을 감소시키고, 반품률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사업자는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품질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품질에 대한 전문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격인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현재까지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초기단계에 있어서 지역특산물의 웹사이트간의 경쟁구조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특산물 가격의 인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3. 강원도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강원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군의 각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여야 하면,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e-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정책지원과 산학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1) 강원도 지역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인프라의 확충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기업 내 내부 ERP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원부족 및 기술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지역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수준을 대기업과 대등하거나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 내·외부의 통합연계시스템의 구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물류/배송시스템과의 연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물류시스템에서의 고비용 문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서비스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역 산업내의 기업간 물류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협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여 시급히 고객중심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병행하여 전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아울러 강원도 공공부문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통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강원도는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가능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기업의 e-비즈니스 수행에 대한 여건을 더욱 조장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검토/추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업비중에서 일정비율을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은 고려해 볼만 한다.

(2) 전자상거래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강원도의 낮은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직장교육 시 e-commerce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전자상거래”커리큘럼을 설치 운영토록 한다. 또한 도내기업, 주민에 대한 e-commerce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소개 및 포상제를 실시하며 e-commerce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도록 한다.

강원도 지역 기업들도 e-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평가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경영자의 투철한 시행의지와 정보기술에 대한 신뢰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강원도 지역의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교육 및 계몽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3) ECRC에 대한 지원과 활용도 제고

기존의 도내 3개 ECRC(춘천, 원주, 강릉)는 ECRC가 소재한 시만을 관할하는게 아니라 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상거래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권역 내의 타 시와 군에서도 행정적인 참여와 함께 일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 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은 물론 쇼핑몰의 제작과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CRC 사업 종료 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수익활동 지원 등 행, 재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ECRC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급 실무교육을 확대하여 ECRC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서 전자상거래를 기업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ECRC 전문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ECRC 강사 또는 컨설턴트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강원도의 인력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SOHO 창업의 지원과 소호몰의 활성화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는 개인이 자기 집 또는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

여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이다. 현대의 경제 사회는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통신, 팩스 등 네트워크 기기가 대중화되어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과 동등한 네트워크 환경을 집안이나 작은 사무실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같이 기간산업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소호창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부나 어민들이 직접 생산·결재·택배를 할 수 있는 '1인기업'을 육성하여 강원도 지역의 영세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1인기업'을 업종별, 지역별로 묶어서 공동 소호몰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비자가 찾는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산업이나 농어촌 생태관광산업, 태백산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휴양, 레저의 관광지역으로서 문화관광사업, 펜션산업 등의 쇼핑몰을 지역별로 구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경제적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호 창업자와 지자체에서는 관광과 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5) 강원도 지역 기업의 자체기술력 강화지원과 도내기업의 B2B 참여율 제고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적 비중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강원도내 기업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비용절감 측면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강원도 외부의 솔루션의 도입보다 강원도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의 기술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강원도 기업의 자체 기술력 강화라는 노력을 지자체 및 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주요 기업의 B2B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 기업들의 업종별 분포는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지역적 특색을 갖는 e-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거나 구축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산물 거래를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스키와 같은 관광자원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의 e-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의 정부주도의 구축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민간기업간 e-비즈니스 협력조직의 발족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 주도하에 발족한 다음, e-비즈니스 지역별, 권역별 대표를 일원화하여 지역별, 권역별 건의안을 정부 및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한다.

V. 결론 및 요약

최근 몇 해 동안 국내 각 업종별 전자상거래 시장은 놀랄 만큼 빠른 성장세를 이룩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 인터넷 이용자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단연 일등공신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 새로운 산업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와 디지털컨버전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강원도 지역의 기업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수산물 중심의 식품가공업, 태백산 중심의 시멘트 및 광업,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은 원주(우산공단, 태장 농공단지, 문막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다. 이러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았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의 4개 주체별로 역할과 과제를 분석하였고, 강원도 지역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재검토하여 그 동안 지적되어온 수주업체의 편중과 덤핑수주 등 그동안 지적 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강원도민이 모두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전 도민의 IT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산업체와 교육기관과 지역단체의 협동으로 강원도의 여건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IT 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대학과 사설 컴퓨터 교육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 학과의 신설이나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만의 특화된 관광전자상거래를 개발하도록 한다.

다섯째, 그동안 다양한 제품의 부족 등으로 실적이 미비하였던 강원도의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위와 같은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보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공식협의체 구성, 다양하고 차별화 된 상품 및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의 과세유예, 부정거래 및 불법행위 규제 강화, 전자결제 수단 보완, 전자상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기능 강화,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등을 통해 강원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홍범,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사이버 공동예약망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관광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관광학회, 2001. 10. pp.115-134
-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ECRC연차보고서”, 200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e-비즈니스 백서“,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해의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전문가포럼 2002”,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2차년도 워크샵”, 2003. 9.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I) - BPO를 활용한 e-Transformation 구현 방법론”,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III) - 글로벌 B2B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IV) -전자상거래(B2C)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전략”, 2003. 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 활성화 워킹그룹 보고서(V) -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거래기반구축방안”, 2003. 1.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자상거래·정보화분야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2003. 2. 26.
- 중소기업청(2001).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순회 로드쇼”
- 강원도(2001). “강원도 제조업체 생산제품현황”
- 이복수, “강원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3. 3·4월 호.
- 지식기반산업 전략지원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1. 12
- 강원지역 IT 산업현황 실태조사, 강릉시, 2002. 2
- 정보통신연감 2002, 전자신문사
- 강원연감, 강원일보사, 2002.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정보화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3. 2.

A Field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Tasks and Policies of E-business in Kangwon Province

Nam-Sik Min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e-business level in Kangwon Province by industries, volumes, employees comparing with nation wide survey output, and analysis of the tasks and problems of e-business in environment, infrastructure, process, manpower, effect.

Poor level of Kangwon province was identified. It is important that role clarity and coope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Kangwon province,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cities and counties should play a centripetal role of the regional enterprises, and faithfully execute the support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make the unique supporting climate of 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and enterprises in consideration with situations of each regional characteristics.

More specifically, there are widening the infrastructure of e-business for regional enterprise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supporting and utilizing the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center. Also, fund supporting for SOHO is desirable in consideration of the poor Kangwon land and population, and to enhance the electronic commerce technology of the Kangwon enterprises, relative importance of policy of it is increasing.

In conclusion, indices of Kangwon province in all areas of the survey is appeared poor. So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ies is needed in each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To promote Kangwon enterprises, investment in e-business commerce should be expanded.